

자신만 챙기는 세상, 가장 귀한 청소년이 되자

교육의향

장옥중
함평군
청소년문화의집 관장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이고 성과를 이뤄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의 뜻을 가진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대한 긍정을 뜻한다. 자신을 객관화하는 것은 자아존중감을 갖는 첫 단추다. 어린시절 성장 과정에서 기쁨을 마련하는 자아존중감은 유아기에 가장 높은 편이며 이후 현실을 알아가고 경험하면서 또래와 비교를 통해 자신을 평가하고 자아존중감 또한 조정하게 된다. 자아존중감 있는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고 정체성이 확립된 사람은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질 수 있다.

청소년들은 주 양육자인 부모와 관계 속에서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받고 자기효능감을 익히게 된다. 청소년시기 형성된 자아존중감은 성인이 되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모들은 청소년기를 거치는 자녀들에 남과 비교하거나 깎아내리지 않고 인정하는 자아존중감 높이는 첫걸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나부터 챙기는 모습이며 나 자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며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방법 또한 배우도록 이끌어 준다.

필자는 청소년기 때 '왜 나만 늘 상처를 받을까'에 대해 생각한 적이 있다. 아무렇지 않은 말에 혼자 깊은 생각에 빠지

고 왜 나만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한 적이 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최근 다시 한번 깨달은 적 있다. 나와 관계부터 돌보지 않고 나보다 남을 먼저 신경쓰고 있었다는 '이제는 나부터 챙기기로 했다'라는 책을 통해 살피볼 수 있었다. 청소년 현장에 있는 때부터 다른 책보다 청소년 관련, 학부모 관련된 책을 먼저 구입하고 읽었다. 최근 접했던 책에서 저자는 상처받고 휘청이는 청소년들을 위한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관계의 올바른 경계를 짓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제시했다.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청소년들과 주 양육자인 학부모들이 함께 읽고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는 질문을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통해 물어본 적 있다. 청소년들은 돈, 명예, 친구, 사람 등등 여러 이야기를 했다. 가장 귀한 게 뭔지 구체화해 청소년들에 물어봤다. 청소년들은 고민 하다 옆에 있는 친구들에 집중을 했다. "친구들에게 어떠한 것을 주면 좋겠는지"를 다시 질문하니 그 친구들에게 뭔가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어떤 것을 주고 싶냐고 물어보니 물질적인 것보다 마음적인 것을 이야기했다. 에너지, 사랑, 마음...

필자는 청소년들과 함께 하며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따스한 어른이 되고 싶고 친구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니 청소년들이 감동의 눈망울과 박수를 힘껏 쳐줬다. 필자는 청소년들과 공감하려 하고 있고 청소년 입장에서 의견을 존중해주고 경청해 주려고 하고 있

다. 청소년들은 삶의 과정에서 친구보다 가족과 부모, 형제자매들과 함께 한다. 필자가 소개한 '이제는 나부터 챙기기로 했다'는 가족, 부모와 관계 개선과 형제자매와 갈등 해결법을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부모는 내 편이 아니라! 부모님은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등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아닌 나부터 부모님을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해 한집에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올바른 거리를 설정하는 것, 친구와 형제자매는 경쟁상대가 아닌 동맹군이냐 경쟁자이고 내 영역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필요하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영역과 경계를 존중하는 것부터가 관계 안에서 존중과 믿음과 신뢰가 꽃피우는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타인이 보는 내가 아닌 내가 보는 타인, 나를 보는 나를 살피는 것도 타인이 보는 나에 얽매이지 않게 된다. 이러한 관계 맺는 법이 관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나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게 된다.

차이와 다름은 같지 않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비교하며 방향성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는 방법이 남과 비교하거나 나를 깎아내리지 않고 그대로 나를 인정하는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첫걸음이자 타인이 아닌 나를 먼저 챙기고, 나부터 챙기는 것이다. 현장에서 함께 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어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다. 지금 여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소중한 마음과 사랑, 신뢰와 믿음을 주는 그날까지.

社說

광주다움 통합돌봄, 표준복지 기준되길

광주시 '국제도시 혁신상'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지난 7일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세계 지방정부 연합(UCLG)의 '제6회 국제도시 혁신상'을 수상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 서울 송파구에 이어 세 번째이며, 지방 도시 가운데는 첫 수상이다.

세계 24만개 도시가 가입한 최대 국제기구인 UCLG는 도시의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상호 공유, 세계 도시 간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2년 '국제도시 혁신상'을 만들었다.

격년제로 시행되는 올해 혁신상은 전 세계 54개국 198개 도시에서 330개의 우수정책이 도전장을 내밀었고 최종 15개 입선장을 결정, 이중 최고상 5개를 선정한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마지막 관문까지 통과해 최고상의 영예를 안았다.

민선 8기 광주시 복지정책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시행 8개월째인 지난 11월말 기준 8752명의 시민이 돌봄서비스를 받았다. 시민 누구나 질

병이나 사고·노쇠·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다. 돌봄콜(1660-2642)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광주시의 핵심과제로 '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땐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빈틈없는 전 생애주기 통합돌봄 서비스망 구축'이라는 목표를 내걸었다.

광주만의 통합돌봄은 △기존 돌봄 △광주+돌봄 △긴급돌봄 세가지체계로 운영된다. 특히 영유아, 장애인, 노인 집중됐던 복지서비스를 △영·유아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1인가구(청년·중장년층) 등 5대 계층으로 확대된다. 통합돌봄은 기존서비스와 달리 신청창구가 단일화된다. 초고령 노인, 심한 장애인 등에게는 먼저 찾아가는 의무 방문으로 신청주의의 한계도 뛰어넘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완벽한 보편복지는 아니지만 광주만의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평가된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은 만큼, 따뜻한 이웃과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대한민국의 표준 복지 기준이 되길 기원한다.

전남도청 복원 광주 자산으로 만들어야

유인촌 장관 지원 약속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8일 광주를 찾아 5·18민주화운동 최후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옛 도청은 5·18항쟁 당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공간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서사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건물이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지켜온 중요한 역사의 현장인 만큼 당시 모습을 복원하고 전시 콘텐츠 구축 등도 이뤄져 광주의 자산으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

유 장관은 이날 광주 전일빌딩245 회의실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을 촉구하며 8년간 농성 투쟁을 벌여온 어머니들과 만나 "2025년 복원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심 갖고 살펴보겠다"고 했다. 위탁을 줘서 수익이 생기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공적 주체가 운영을 맡는 등 복원이 마무리된 후 어떻게 운영할 지도 살펴보겠다는 다짐도 했다. 복원 이후 항쟁사 콘텐츠 등 전시 방법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옛 전남도청은 1980년 5월 27일 시민군이 진압직전에 나선 계엄군에 맞선 최후의 항전지다. 앞서 이 건물은 전남도청이 지난 2005년 무안으로 이전하고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면서 원형 일부가 훼손됐다. 이후 우여곡절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19년 3월 옛 전남도청 복원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본격 추진에 나섰고 지난 10월 30일에는 복원 공사가 시작됐다. 복원 대상은 도청 본관·별관과 도청 회의실·경찰국본관·경찰국민원실·상무관 등 6개 동이며 완공 시점은 오는 2025년이다.

문화유적은 한번 훼손되면 원형 복원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옛 전남도청이 옛 모습 그대로 복원돼 역사의 현장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복원의 의미는 기억에 있다는 점에서 복원된 공간을 어떻게 꾸밀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옛 전남도청 복원이 5·18을 기억하는 광주의 대표 공간으로 자리잡고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과 전시, 기록까지 모든 것을 갖춘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주말 휴일동안 낮 기온이 20도를 훌쩍 웃도는 등 포근한 날씨를 보인 10일 오후 제주시 이호해수욕장을 찾은 시민들이 맨발로 해변을 걸어가고 있다.

제주=뉴시스

서석대



연말이다. '본인 사망 외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송년모임 소식도 올라오고, 연락 뜸했던 지인들도 해넘기 전에 얼굴 한번 보자는 전갈을 보내온다.

이때때가 되면 '대한민국 한문 공부시간'도 어김없이 돌아온다. 2001년 이후 교수신문이 연말 기획으로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하면서 등장한 풍속어이다. 교수들은 공모를 통해 그 해 한국사회를 관통하는 사자성어를 선정하고, 언론은 한 글자, 한 글자에 담긴 촌철살인의 의미를 정확하게 풀어 내보낸다.

이런 전통은 다른 나라에도 있다. 가까운 일본은 '올해의 한자'를 매년 발표한다. 독일은 '올해의 단어(Word of the Year)'를 독일어학회에서 선정하고, 미국 방언협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식의 '올해의 핵심단어'를 내놓는다.

교수신문은 2023년 올해의 사자성어 후보로 견리망의, 남우충수, 도탄지고, 적반하장, 제설분분 등 모두 5개를 선정했다.

제설분분(諸說紛紛)은 여러 의견이 뒤섞여 혼란스럽다는 뜻이다. 적반하장(賊反荷杖)은 잘못된 사람이 도리어 잘한 사람을 나무라는 경우를 빗대어 표현한 말이다.

도탄지고(塗炭之苦)는 진흙 수렁에 빠지고, 숯불에 타는 듯한 큰 고통이란 뜻으로, 화정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어

려움을 가리키는 사자성어다. 남우충수(濫芋充數)는 피리를 불 줄도 모르면서 함부로 피리 부는 악사들 틈에 끼어 인원을 채운다는 뜻이다. 무능한 사람이 능력 있는 척 하거나 실력이 없는 사람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빗댄 것이다.

마지막 견리망의(見利忘義)는 '눈앞의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견리사의(見利思義)를 비틀어 풍자한 패러디(Parody)이다.

극단의 견리망의가 난무해 나라 전체가 마치 각자도생의 싸움판이 된 것 같은 2023년 대한민국 사회상을 날카롭게 꿰뚫은 것이다.

필자가 선자(選者)라면 1년 내내 씹박질만 하다 허송세월한 정치판과, 국정의 최악 난맥상을 보건대, 아무래도 사이버 악사가 판을 치는 '남우충수'로 기울 것 같은데, 교수 131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견리망의'가 가장 많았다고 한다.

내로남불을 한자어로 옮긴 2020년 '아시타비'(我是他非),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다는 뜻인 2021년 '묘소동처'(貓鼠同處),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을 지닌 2022년 '과이불개'(過而不改)에 이어, 올해의 사자성어는 이익에 눈 멀어 가치와 정의를 상실한 세상 풍조를 비판한 견리망의(見利忘義)로 귀결됐다. **최도철 미디어국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94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36	사진부	(062)510-0391
정치부	(062)510-0340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